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에서의 가타카나 교육에 대한 연구

한 천 희*

ruu1002@hanmail.net

차례

- I. 서론
- II. 본론
 1. 제7차 교육과정 일본어 I 분석
 2. 가타카나 교육의 실태 조사
 3. 가타카나의 지도법
- III. 결론

요 지

本論は、高校の日本語教育においてカタカナがどのように扱われ指導されているか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し、第7次検定教科書内に使用されるカタカナ語の調査を中心に、以下のように考察しまとめたものである。

まず、第7次検定教科書に現れるカタカナ語の種類と総数を調べた。その結果、教科書によってカタカナ語の種類や使用量に大きな差がみられた。これは教科書ごとに、カタカナ語を採用する際の基準が曖昧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今後は教科書に採用されるカタカナ語を質、量ともに一層充実させるべきであると考えられる。また、教科書採用語彙を選定する際に参照される基本語彙についても、カタカナ語を中心に考察した。その結果、基本語彙に含まれるカタカナ語は少ない上に、現在の語彙使用頻度を反映していると言いがたいため、基本語彙選定についてより明確な基準が設けられ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

続いて、高校の日本語教員のカタカナ(語)教育の実体をアンケート形式で調査し集計した結果、教師達の多くはカタカナ語の重要性は認めている反面、授業時間におけるカタカナ指導時間はさほど多くは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その理由として、カタカナ指導の教材不足、指導法がわからない、また学生側のカタカナに対する学習意識の不足などがあげられた。

最後に、授業時間におけるカタカナ語教育のありかたについて考察した。まず、カタカナ語の定着を図るために各教科書に設けられた練習問題などを取り上げ紹介し、さらにカタカナ文字を覚えさせるための方法について考察を加えた。

以上の考察の結果、今後のカタカナ語教育のために、①教科書におけるカタカナ語彙の拡充を図ること、②基本語彙の妥当性を高めるために学生のニーズなどを反映させる、③外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일어교육전공 졸업

來語音など、カタカナでのみ表記される文字や長音記号の提示、④カタカナに關する副教材や指導法研究の活性化などが必要であると結論つけた。

키워드 : 가타카나, 교과서, 기본어휘

I. 서론

일본어 표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음으로서는 같은 어휘라 해도 다른 언어와 달리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로 구분하며 여러 가지 문자를 사용해 그 어휘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며 각기 다르게 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중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외래어를 포함해 현대에 들어 그 사용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타카나에 대해서다.¹⁾ 신문이나 잡지, 거리의 간판, 광고문구나 노래의 가사 외에도 주변에서 많은 가타카나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래어로서 정착하지 않은 말까지도 일본어 속에 사용되어 그 사용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신어의 증가, 그 중에서 가타카나 어휘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가타카나의 사용을 한자, 히라가나로 바꾸고자 하는 현상²⁾ 또한 있으나 이는 체계 없이 범람하는 가타카나 사용을 지양하자는 의미로서 앞으로 가타카나의 사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날로 그 비중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고등학교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 가타카나 학습의 중요성은 그다지 지적되어져 있지 않고 아직까지 고등학교 일본어 학습자 중에서는 가타카나를 암기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극소수의 중상급자 수준에 한정되는 현실이다. 실질적으로 수업에서 가타카나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 학습자들이 가타카나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이 마무리되

1) 현대일본어의 어휘사용과 관련하여 1956년 국립국어연구소의 잡지 90종을 대상으로 한 어휘조사에서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9.8%, 1966년의 국립국어연구소가 실시한 신문 어휘조사(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 조간, 석간의 1년분을 대상)에서는 외래어의 비율이 12.0%로 나타났다.

김숙자(1997), 「일본어와 한국어의 외래어 대조」, 『人文科學研究』第6號, 상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378

2) 國立國語研究所 「外來語」委員會의 「外來語」言い換え提案: 범람하는 가타카나 사용을 지양하자는 제안.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등학교 일본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본어 교육에서는 초급 단계에서 가타카나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가타카나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일본어 교육이 의사소통 중심의 회화 교육에 중점이 놓여있다고 해도 문자라는 것은 읽는 것의 기초이며 표현의 기초도 되는 것이므로 문자 학습은 결코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되는 분야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의 일본어과목에서 가타카나가 어떠한 위치와 현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 12종 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기본어휘의 선정 및 타당성에도 주목하고자 하는데 이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특성상 어떤 어휘가 기본어휘로 선정되는가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과 질이 좌우되고 이는 곧 학습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일선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의 가타카나에 대한 인식 및 실제 수업에서의 학습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타카나 교육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가타카나 학습의 지도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제7차 교육과정 일본어 I 분석

1.1 총 어휘수에 대한 가타카나어 비율

현행 교과서 12종에 대해 각 교과서의 총어휘수에 대한 가타카나어수의 비율을 파악함으로써 양적인 면에서 적절한 교과서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1>에 의하면 12종 교과서중 총어휘수 대비 가타카나어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교과서는 12.8%의 G교과서이다. 다음이 12.1%의 L교과서, 11.6%의 K교과서 순이고 가장 낮은 비율의 교과서는 A교과서로 7.2%이다. G, L, K교과서의 경우 현대 일본어의 외래어 사용비율에 근접한 가타카나어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과서, 특히 A, B, C, H교과서의 경우 가타카나어의 비율이 7%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각 교과서의 총 어휘수와 가타카나어 비율

교과서명	총 어휘수	가타카나어수	비율(총 어휘수에 대한 가타카나어수)
A	555	40	7.2
B	467	34	7.3
C	570	42	7.4
D	629	66	10.5
E	587	58	9.9
F	565	50	8.8
G	643	82	12.8
H	535	41	7.7
I	502	41	8.2
J	552	57	10.3
K	432	50	11.6
L	675	82	12.1
합계	6712	643	9.6

다음의 <표2>는 제6차 교육과정과 비교한 총 어휘수에 대한 가타카나어수의 비율이다. 단, 색인을 기준으로 한다.

<표2> 6차 교육과정과 비교한 가타카나어 비율

교육과정 \ 구분	총 어휘수	가타카나어수	비율
제7차 교육과정	6712	643	9.6
제6차 교육과정	7882	457	6.0

<표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총 12종의 교과서에 사용된 가타카나어의 비율은 약9.6%로 제6차 교육과정의 일본어 교과서 I의 10종교과서에 사용된 가타카나어의 총어휘수에 대한 비율인 6.0%와 비교해 볼 때 약 3.6%가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현대 일본어 추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나 7차 교과과정의 교과서에서 가타카나어의 비율이 9.6%라는 수치는 현재 일본어에서 가타카나어가 차지하는 비율에 못 미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사용된 가타카나어의 상당수가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인명·지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고등학교 교과서에 가타카나어가 차지하는 실질적인 수치는 결코 높은 편이 아닐 것이다.

또한 가타카나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해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가타카나어의 비율을 더욱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A(7.2%),

B(7.3%), C(7.4%)의 교과서의 경우 제8차 교육과정으로의 개편 시에 가타카나어 구성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단, 이 조사는 박도진(2001)의 6차 교과서 분석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총어휘수와 가타카나어 수의 기준을 부록의 색인으로 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교과서 전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분석이 요구된다.

1.2 가타카나어수

각 교과서별 가타카나어 출현 수는 <표3>과 같다. 본고에서 조사대상으로 한 가타카나 어휘는 가타카나로 표기된 어휘를 말하며 범위는 부록을 제외한 교과서 전체로 한다. 교과서 안에 중복되어 나올 경우에는 한 번만 계산하였다. 단, 오자표기와 각과의 코너명은 제외한다.

<표3> 각 교과서 가타카나어수

교과서 항목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합계
가타카나어수	70	45	66	92	70	81	81	72	79	89	67	88	75	900
평균대비	-5	-30	-9	-17	-5	6	-3	-3	4	14	-8	13		

<표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사용된 가타카나어수가 교과서마다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교과서에 출현한 가타카나어수가 가장 많이 출현한 교과서는 D교과서로 92개, 그 다음은 J(89), L(88)순이었고 가장 적은 수가 출현한 교과서는 B교과서의 45개로 가장 많은 교과서와 적은 교과서의 차이가 무려 두 배가 넘었다. 이렇게 가타카나 어휘의 빈도수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은 각 교과서의 편찬 기준이 제각각임을 나타낸다.

1.3 공통 가타카나어

다음 <표4>는 각 교과서에 공통으로 쓰인 가타카나어의 숫자를 나타낸 것이다. 단, 인명은 제외하였다.

<표4> 공통 가타카나어수

분포	12종 공통	11	10	9	8	7	6	5	4	3	2	1	합계
어휘수	2	6	3	9	2	7	3	9	19	27	38	212	337
누적수	2	8	11	20	22	29	32	41	60	87	125	337	
백분율	0.6	1.8	0.9	2.7	0.6	2.0	0.9	2.7	5.6	8.0	11.3	62.9	100
누적율	0.6	2.4	3.3	6	6.6	8.6	9.5	12.2	17.8	25.8	37.1	100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12종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휘는 총어휘수(337)중 단 두 단어(0.6%)뿐이고 반 수 이상의 교과서에 공통으로 사용된 가타카나어 또한 32개로 전체 가타카나어의 9.5%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각 교과서 단독으로 사용된 가타카나어가 전체 어휘의 62.9%인 212개로 압도적인 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각 교과서 마다의 각기 다른 어휘를 많이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의 교과서 종류에만 나타나는 어휘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은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 편찬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 <표4>의 6종 이상의 교과서에 나타난 어휘(32어) 가운데서 교육과정 지정 기본어휘와 고유명사를 제외한 12개어는 교육과정의 기본어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4 가타카나 문자 출현 현상

가타카나의 개별 46문자가 전 교과서에 출현하지 않는 이유는 교과서에 차지하는 가타카나어의 숫자가 그리 많은 수를 차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또한 고등학교 교과서라는 한계 상 가타카나가 외래어, 오노마토펜(オノマトペ)등의 표기에 국한되어 쓰인다는 출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각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가타카나가 존재한다. 또한 가타카나어의 구성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기보다는 본문의 문맥에 어울리는 어휘를 그 상황에 맞추어 사용했기 때문에 누락되는 가타카나가 나타난 것이다.

각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가타카나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5>와 같다. 단, 기본 46음을 기준으로 하며 탁음, 반탁음, 요음, 이중모음의 경우 또한 기본 문자의 연장선으로 취급한다.

<표5> 각 교과서 미제출 가타카나

교과서	제시되지 않은 가타카나	개수
A	ヌ、モ、ヲ	3
B	エ、チ、ヌ、マ、モ、リ、ワ、ヲ	8
C	ヌ、ヘ、ヤ、ワ、ヲ	5
D	エ、ヌ、ネ、ヲ	4
E	エ、ヌ、モ、ワ、ヲ	5
F	モ、ヲ	2
G	ヌ、モ、ヲ	3
H	ヌ、ヲ	2
I	ヌ、ネ、ワ、ヲ	4
J	ヌ、モ、ヲ	3
K	エ、ヌ、ヲ	3
L	ヌ、ロ、ヲ	3

<표5>에 의하면 가타카나 중에서 「ヲ」는 전 교과서에서 「ヌ」는 11종의 교과서에서 빠져있다.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가타카나의 개별 문자수가 가장 많은 교과서는 B(8개)이고 가장 적은 교과서는 F·H(2개)이다.

교과서에 쓰이지 않은 「ヲ」의 경우 실제로 가타카나어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 누락된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히라가나와의 형평성과 문자로서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볼 때 50음도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하겠다.

위의 각 교과서별 미제출 가타카나는 일선의 현장에서 교사의 지도가 없으면 학습자가 학습할 기회를 잃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1.5 가타카나어의 분류

본 단원에서는 12종 교과서에 쓰인 가타카나어를 용례별 분류, 「分類語彙表」에 의한 분류에 의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그 분류의 각항에 어떠한 분포를 이루며 교과서에 대하여 구성상의 특징을 보는 잣대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휘의 표현에 있어서의 과부족이나 용어의 특징적인 집중에 대한 부분이 확실해 질 것이다. 나아가서 기본어휘 설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서의 역할도 갖고 있다고 보여 진다.

1.5.1 용례별 분류

가타카나어는 사용되는 어휘가 그 기능별로 한정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가타카나로 표기되는 어휘는 외래어, 외국 인명·지명, 동물·식물의 이름, 의성어·의태어, 강조하고 싶은 한자 속어, 감동사, 서투른 말씨, 은어 속어, 어려운 한자를 대신할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표6> 각 교과서 가타카나어 용례별 분류

교과서 \ 분류	외래어	인명·지명	동물·식물명	의성어·의태어	합계
A	38	30	1	1	70
B	33	12			46
C	44	19	2	1	66
D	50	42			92
E	44	26			70
F	56	24	1		81
G	68	12	1		81
H	62	10			72
I	55	19		5	79
J	66	23			89
K	52	15			67
L	64	24			88
합계	632	256	5	7	75
비율(%)	70.2	28.4	0.6	0.8	100

<표6>은 각 교과서의 가타카나어를 이러한 용례별 분류를 통해 분석한 것으로 가타카나로 표기되는 어휘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외래어의 70.2%로 나타났다. 다음은 인명·지명으로 28.4%, 의성어·의태어가 0.8%, 동물·식물명이 0.5%이다. 현대 일본어에서 가타카나로 표기되는 어휘의 비율이 87%임에 비교한다면 인명·지명관련 가타카나어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등학교 교과서라는 특징상 등장인물과 지명이 많이 사용되는 영향이라 보여 진다.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가타카나로 표기되는 용례들 중에서 현행 교과서에 표기되어진 외래어, 인명·지명, 동물·식물, 의성어·의태어 등의 용례들은 초급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생각되고 그 이외의 표외한자, 전보문, 전문용어, 이중음독 등의 용례는 초급 단계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혀 표기되지 않은 용례들, 즉 강조하고 싶은 한자 속어, 감동사, 서투른 말씨,

속어·은어, 어려운 한자를 대신하여 쓰는 경우 등은 학습자들이 교과서에서 전혀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가타카나 표기가 위의 4가지 용례에만 한정시켜버리는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교과서 제작자가 교과서에 위의 용례들을 수록시켜 학생들에게 접할 기회를 주거나 교사의 세세한 지도가 요구된다.

1.5.2 「분류어휘표(分類語彙表)」에 따른 분류

분류어휘표 리는 것은 하나의 언어체계 속에서 그 어휘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단어가 각각 어떠한 의미로 쓰여 지고 있는지를 일람할 수 있도록 단어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의 세계를 분류해서 그 분류의 각항에 각각의 단어를 배당한 것으로 어떤 개인 어떤 사회의 언어체계 또는 언어 작품에 대하여 표현상의 특색을 보는 지표로서의 역할이 있다. 의미의 일람표에 어휘를 맞춰보면 표현의 과부족이나 용어의 특징적인 집중이 확실해 질 것이다.

1) 분류어휘표의 특징

품사별로 구분을 한다면 가타카나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래어는 그 대부분이 명사인 것을 알 수 있다. 형용동사도 출현하지만 어의 종류나 사용빈도는 명사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적고 한번밖에 출현하지 않는 가타카나어가 대부분이다.

2) 분류어휘표의 분류

우선 대분류로 ‘1.体の類’, ‘2.用の類’, ‘3.相の類’, ‘4.その他’ 네 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명사, 동사, 형용사,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명사에 해당하는 ‘1.体の類’에는 何、何事、何者、どれ、だれ、いつ、どこ、いくつ 등의 개념을 나타내는 어와 그것들을 물었을 때 답이 되는 어를 취급한다. 1의 중분류로는 1.1抽象的關係, 1.2人間活動의 主体, 1.3人間活動—精神 및 行爲, 1.4生産物 및 用具, 1.5自然物 및 自然現象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다.

<표7> 분류어휘표에 의한 가나타카어 분류(괄호안은 개수)

교과서	体の類	相の類	その他
A	1.1(4) 1.2(4) 1.3(12) 1.4(11) 1.5(1)		4(1)
B	1.1(2) 1.2(4) 1.3(13) 1.4(13) 1.5(1)		
C	1.1(3) 1.2(3) 1.3(2) 1.4(26) 1.5(6)		4(1)
D	1.1(2) 1.2(7) 1.3(13) 1.4(19) 1.5(1)		

E	1.1(3) 1.2(5) 1.3(13) 1.4(7) 1.5(15)	3(1)	
F	1.1(3) 1.2(6) 1.3(19) 1.4(24) 1.5(1)	3(1)	4(1)
G	1.1(5) 1.2(9) 1.3(26) 1.4(22) 1.5(3)		
H	1.1(3) 1.2(3) 1.3(22) 1.4(23)		
I	1.1(1) 1.2(3) 1.3(19) 1.4(25) 1.5(2)		4(4)
J	1.1(2) 1.2(4) 1.3(26) 1.4(29)	3(1)	
K	1.1(2) 1.2(3) 1.3(15) 1.4(24) 1.5(3)		4(1)
L	1.1(4) 1.2(2) 1.3(17) 1.4(21)		

<표7>에 의하면 외래어가 주가 되는 가타카나어의 특성상 명사, 즉 ‘1.体の類’에 대부분이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3人間活動-精神 및 行爲’과 ‘1.4生産物 및 用具’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특성상 초급수준의 외래어, 즉 일상생활에서의 취미, 여가 생활 관련을 비롯해 도구, 음식 어휘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그에 비해 ‘3.相の類’에 해당되는 단어는 ニュー、ハンサム 두 단어에 불과하다. 그 외로 ‘4.その他’의 경우 인사말, 의성어·의태어가 일부의 교과서에서 포함되었다.

1.6 가타카나어 기본어휘 고찰

본 단원에서는 가타카나의 기본어휘에 대해 간단히 정의하고 7차 교육과정 일본어 교과서 안의 기본어휘 사용 현황 분석과 기본어휘의 타당성 검토를 하려고 한다.

교육과정에서의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 제한에 따른 체계적이고 의식적인 학습은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교과서 구성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엄선된 어휘 선정의 하나로서 기본어휘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기존의 자료 중 참고 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은 문헌 속에서의 사용여부를 통한 방법으로 한다.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문헌은 『日本語教育基本語彙七種比較對照表』, 『日本語能力試驗出題基準』, 다마무라(玉村)(1991)의 기본 외래어170³⁾이다.

단, 위 문헌의 출판 시기를 고려해 볼 때 타당성 검토에 무리가 있는 인터넷 관련 부분에 해당되는 Eメール, コンピューター, インターネット, ホームページ, アクセス, パソコン의 6개 단어는 제외시키기로 한다.

3) 玉村文郎(1991), 「日本語における外來要素と外來語」, 日本語教育學會, 『日本語教育』74号, p.26

<표8> 기본어휘의 문헌 대조

	일본어교육기본어휘 7종 비교대조표	일본어 능력시험 출제기준 (4급)	기본 외래어 170
テレビ	3	■	**
スポーツ	4	■	**
バス	5	■	**
コーヒー	5	■	**
パン	6	■	**
カメラ	3	■	**
テーブル	6	■	*
ノート	4	■	*
シャツ	5	■	**
スカート	4	■	**
コップ	6	■	**
タクシー	3	■	**
ネクタイ	6	■	**
ニュース	3	■	**
ラジオ	5	■	**
ドア	3	■	**
ハンカチ	6	■	**
ズボン	6	■	**
デパート	3	■	
コピー		■	*
ゲーム	2		**
サッカー	2		
ワープロ			*
コミュニケーション			
スーパー			
ジャズ			
データ			
ファン*			
タバコ	히라가나	히라가나	
ラップ			
ロック			
ポケベル			
カラオケ			

<표8>은 기본어휘를 위의 문헌에 대조시킨 표이다. <표8>을 분석해 보면 7종 비교대조표의 반수 이상인 4종 이상에 쓰인 기본어휘는 13개에 불과하며 전혀 쓰이지 않은 가타카나어도 11개나 된다.

일본어 능력시험 출제 기준에 의하면 고등학교 일본어 수준 이상으로 판단되는 3급 어휘가 2개, 2급 어휘가 2개, 1급 어휘가 3개, 출제 기준에 나오지 않는 어휘가 6개이다. 다

마무라 기본외래어170과의 비교를 통한 검토에서는 최중요도 100개(**)에 포함되는 기본 어휘가 17개, 차(次)중요어 70개(*)에 해당하는 기본어휘가 4개, 기본외래어170에 포함되지 않은 어휘가 12개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해 보면 33개 가타카나어중 7종 비교대조표에 포함되는 어휘는 21, 능력시험 출제기준 4급에 해당되는 어휘는 20, 기본외래어170과 겹치는 어휘는 21개이며 이 세 가지에 모두 겹치는 어휘는 18개, 두 가지에 겹치는 어휘는 3개, 한가지에만 나오는 어휘는 2개, 그리고 세 가지 문헌 어느 곳에도 사용되지 않은 기본어휘가 10개가 된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9>다.

<표9> 기본어휘의 문헌대조 결과

비교기준 항목	일본어교육기본어휘 7종비교대조표	일본어능력시험 출제기준4급	玉村文郎기본외래어 170	3종	2	1	0
해당 기본어휘	21	20	21	18	3	2	10

결과를 토대로 기본어휘의 타당성을 판단한다면 두 가지 이상의 자료에 해당되는 テレビ、スポーツ、バス、コーヒー、パン、カメラ、テーブル、ノート、シャツ、スカート、コップ、タクシー、ネクタイ、ニュース、ラジオ、ドア、ハンカチ、ズボン、デパート、コピー、게임의 21개의 어휘는 비교적 기본어휘로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세 자료의 어느 곳에도 쓰이지 않은 10개의 어휘 즉, サッカー、ワープロ、コミュニケーション、スーパー、ジャズ、データ、ファン、タバコ、ラップ、ロック、ポケベル、カラオ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가타카나 교육의 실태 조사

이번 장은 고등학교 일본어 과목에 있어서 가타카나 교육의 현상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현장에서 일본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그 회답 결과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2.1 조사 대상

현장에서의 가타카나에 대한 인식과 교육 현황에 대한 설문은 서울·경기지역을 중심

으로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로 고등학교 일본어 교육을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가르친 경험이 있는 한국인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표10> 조사 대상의 인적 사항

성별	남성		여성			합계
	15		35			
연령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50
	11	24	11		4	
근무기간	1년 미만	1~2년	3~5년	6~10년	10년 이상	50
	14	2	7	12	15	
일본체류경험	없음		있음			50
	35		15			

2.2 조사 결과

설문 조사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사들의 대부분(84%)이 가타카나도 일본어에 있어서 히라가나, 한자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 수업에서 체계적으로 가타카나를 가르치는 교사가 56%, 그렇지 않은 교사가 44%로 아직까지 상당수의 교사가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가타카나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가타카나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으로 학생들의 인식부족을 들었으며 교사들은 히라가나 보다 가타카나를 가르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타카나 학습에 있어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읽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교사들은 실제 수업에서 가타카나 학습에 사용하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시간 배분에 비해 실제 수업에서 학습시키는 시간 배분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5) 현행 교과서내의 가타카나 문자에 할애된 페이지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교사들이 갖고 있으며 교과서의 가타카나어 출현 수도 부족하다고 대답한 교사가 많았다.

6) 교사들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의 가타카나어 비율을 현대 일본어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을 원하며, 교과서 구성에 있어서 일본에서 자주 사용되는 외래어 중심으로 교과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7) 현행 교과서의 가타카나어 구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그 이유로 사

용도가 낮은 단어 사용과 난이도가 너무 쉬운 단어가 많다는 의견이었다.

8) 교과서 개선 방향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니즈를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과 가타카나어의 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중심이었다.

교사들은 대부분 일본어 안의 가타카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현대 일본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수업에 있어서는 가타카나를 체계적으로 학습시키지 않거나 교과서 안의 가타카나어만 다루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원인으로서는 부족한 수업시수나 학생들의 인식부족도 있지만 가타카나 학습과 관련된 부교재나 교구의 부족이나 올바른 교수법이 미비한 점도 그 이유로 들 수 있겠다.

3. 가타카나의 지도법

3.1 가타카나 지도의 현상

가타카나는 일본어교육의 입문기에 소홀히 다루어지며 그 후로도 체계적으로 지도되지 않는다. 이는 교육의 중점이 문형교육이나 회화교육에 두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 교육에서도 히라가나, 한자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문자라는 것은 읽는 것의 기초, 표현의 기초이다. 더구나 어휘를 증가시켜기는 기본적인 지식, 능력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학습해야 할 부분인 것이다.

현행의 일본어교과서에서 가타카나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은 극히 적다. 지도의 현상을 알기위한 기준의 하나가 교과서이다. 초급교과서에 있어서 외래어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가타카나의 교육법의 개발과는 다른 문제일 것이다. 전혀 가타카나를 모르는 학습자에게 어떻게 가타카나의 자형을 인식시키고 표기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단시일로 도입, 정착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을 현재의 일본어 교재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가나에 관련된 교재도 적고 수업에서도 히라가나 학습 후 가타카나로 넘어오면 50음도 표만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무엇과 무엇을 지도해야 할 것인가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하는 지도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가타카나 지도에 있어서의 목표는 가타카나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것에 맞춰져 있

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읽는다는 것은 가타카나를 보고 그 음을 목소리를 내서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쓴다는 것은 소리를 듣고 그 음을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마디로 문자소의 연결을 음소의 연결로 바꾸어 놓는다는 작업, 또는 그 반대의 작업인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가타카나가 읽고 쓸 수 있게 된 것 만으로 그 기능은 충분한 가타카나 학습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소리를 내서 말하고 글로 쓸 수 있는 경우라도 가타카나어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형태상의 문자를 학습한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기능을 습득했다고 말할 수 없다. 즉, 가타카나의 사용 장면까지 고려해서 지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가타카나 교육이라고 보기 힘들 것이다.

3.2 가타카나의 도입 방법

히라가나를 먼저 가르칠 것인가 가타카나를 먼저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 교육에 관해서는 히라가나 학습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는 가타카나의 직선적인 서법의 간편함과 같은 부분보다는 일본어에서의 사용 빈도의 유용성이 우선시되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까지 일본어의 사용이 히라가나가 우선이고 가타카나는 어느 의미에서 특수표기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히라가나부터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타카나는 히라가나에 비교해 사용빈도도 낮고 학생들이 히라가나 문자도 완전히 소화시키지 않은 단계에서 단기간에 걸쳐 가타카나까지 습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사이에서 학생들의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타카나의 도입단계에서 생각해보면 우선 히라가나를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히라가나 학습에서 가나가 음절문자라는 것을 습득하고 있다는 이점이 있다.

도입 단계에서의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자체(字体)가 히라가나와 다르다고는 하나 어느 정도 닮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へーへ、リー리의 경우 거의 히라가나 가타카나의 차이가 없다. 또한 せーせ、やーや、もーも、かーか、きーき 등도 상당히 닮아있다. こーこ、にーに 등도 히라가나 통해 가타카나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히라가나를 먼저 익히고 있는 만큼 가타카나 문자 학습에 있어서 히라가나와의 일대일 대응으로 가르치는 것은 편리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대응이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2) 가타카나는 장음의 기호가 「ー」로 간단히 표기되기 때문에 히라가나보다 오히려 익히기가 쉽다고 할 수 있다.

3) 어려운 모양의 글자, 혼동하기 쉬운 글자를 따로 제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되도록 학습시킨다.

ア→マ ウ→ラ ウ→ワ エ→ユ ク→タ ケ→ク ク→フ コ→ユ シ→ツ シ→ン→レ ス→ヌ
ソ→ン チ→ケ テ→ラ チ→ケ→テ フ→ラ ヲ→ラ ル→レ

4) 한국 일본어 학습자들이 자주 틀리는 가타카나, 예를 들어 ミ(シ), ヨ(ト) 같은 문자들을 따로 분류해 강조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요음, 축음 이외의 소문자를 사용하는 특수음은 외래어를 표기하는 장면, 보다 원어의 음에 가깝게 하려고 해서 나온 것이다. ファ, フイ, フェ, フォ 등과 같은 음은 일본어에는 없다. 그러한 음을 표기하려는 가타카나 사용이 특수음이다. 특히 히라가나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용법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꼭 알려줘야 하는 부분이다.

그 사용도가 낮은 특수음까지 모두 쓸 수 있게 하면서까지 지도 항목을 늘리는 것 보다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타카나 문자를 중심으로 지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특수음을 일일이 익힐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따로 지도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읽기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설명은 꼭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본인의 이름 등의 인명 표기를 예로 설명한다면 가타카나의 기능도 익힐 수 있고 학습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6) 가타카나의 자원(字源)을 이용해 학습시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안을 해본다. 일본어의 가타카나 문자에 대해 막연히 주입식으로 암기시키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가타카나의 기원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자원으로 가타카나를 연결해 이해시킨다면 학생들의 흥미도 생기고 이해도나 암기 효과도 커질 것이다.

이외에도 가타카나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타카나가 한자나 히라가나보다 표기가 쉽고 자형이 간단하다는 점과 가타카나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가타카나의 습득과 사용이 일본어 학습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편리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면 보다 학습에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3 교과서 중심으로 살펴 본 가타카나 지도법

가타카나 학습에 관련해 제시된 여러 가지 방법을 현행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가타카나 학습의 구체적인 지도법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인명·지명 소개

가타카나 학습에 관련된 것 중 자기소개나 가족, 친구, 선생님 소개 등의 이름을 쓰거나 사는 곳 같은 지명을 쓰는 경우를 통해 가타카나를 쓰고 읽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명함을 만들어 보거나 자기 소개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고 친구 소개, 또는 초대장 작성 등을 통해 인명과 관련된 가타카나 쓰기 학습이 많이 이루어졌다. 지명의 경우 본인이 사는 곳이나 가보고 싶은 곳, 한국의 유적지 소개 등의 형식으로 다루어졌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을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본인과 관계된 인명, 지명을 이용해 가타카나를 학습하는 방법은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기 쉬우면서 학습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특수음의 사용 예의 설명에 있어서 유용할 것이다. 또한 사진을 이용한 본인이 좋아하는 인물 소개나 여행하고 싶은 장소 소개 등의 형태로도 학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과 수도를 이용한 학습방법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타카나 학습의 한 방법일 것이다. 지도를 이용하거나 간단히 국기 그림을 이용해서 가타카나 학습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빙고게임

빙고 용지에 각자 가타카나를 칸 수에 맞게 쓴 후 친구와 바꾸거나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선생님이 말하거나 칠판에 쓰는 가타카나에 표시를 해나간다.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정해진 열에 모두 표시되면 '빙고'를 외치는 게임이다.

학생들이 용지에 쓰는 단계에서는 쓰기 연습이 되고 교사가 말하는 가타카나를 확인할 때 읽기 연습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방식의 게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의 하나라 생각된다.

3) 그림 그리기

가타카나 46문자를 무작위로 배열하고 순서대로 선을 잇게 하는 게임이다. 학생들에게 순서대로 낭독시키거나 교사가 한자씩 읽어주면서 글자를 이어가며 선을 그리게 하는 게임이다. 완성된 그림의 형태를 기모노나 스모 등의 일본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한다면 일본 문화 학습에도 연계시킬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것이다. 학생들이 가타카나를 완전히 암기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쉽게 진행시킬 수 있는 가타카나 학습초기 단계의 간단한 게임의 하나이다.

4) 단어 찾기

퍼즐을 이용해 가타카나 글자를 익히는 것으로 단어를 제시하고 그 글자를 찾아내는 학습 방법이다. 단어 찾기는 가타카나로 이루어진 글자표를 보며 <보기>나 <예>에서 지정해 놓은 이름이나 단어를 찾는 게임이다. 학생들이 가타카나를 떠올리는 문제 풀이이므로 보기의 단어들은 히라가나나 영어로 적어 놓는다. 학생들을 몇 명씩 모둠으로 나누어 각 모둠별로 학습시킬 수도 있다.

교사가 <보기>에서 이름을 정하여 부르거나 칠판에 쓰면 학생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가타카나를 찾아 체크하는 방식이다.

제시되는 단어는 바로 앞 과에서 익힌 단어를 사용하면 효과적인 것이다. <보기>에 단어 대신에 그림이나 사진을 제시해서 그에 맞는 가타카나어를 글자표에서 찾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글자표에 답이 되는 가타카나어의 첫 문자만 제시하고 뒷부분은 제시된 그림이나 단어에 맞게 학생들이 가타카나를 써서 채워 넣는 방식으로 퍼즐을 풀게 하는 방법도 가타카나문자뿐만 아니라 가타카나어의 암기 확인 및 쓰기 연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문자 전달 게임

문자 전달 게임은 학급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 후 교사는 문자카드를 각 그룹의 맨 뒷사람에게만 보여준다. 그룹의 제일 뒷사람부터 시작하여 각 앞사람의 등에 가타카나를 손가락으로 쓰게 한다. 문자전달이 끝나면 제일 앞사람과 뒷사람이 칠판에 가타카나를 쓴다. 몇 번 반복하여 어느 그룹이 잘 전달했는지 순위를 정한다. 학생들 모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타카나 학습 초기 단계의 간단한 게임방식이다.

6) 히라가나→가타카나, 가타카나→히라가나로 바꾸어 써 넣기

각 과마다의 연습 문제에 주로 나오는데 그 과에서 나왔던 단어 중 몇 개를 골라 히라가나는 가타카나로, 가타카나는 히라가나로 바꾸어 쓰는 문제 풀이 형식이다. 교사는 간단히 문항을 만들 수 있고 쓰기 연습 내지는 읽기 연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외에 영어 단어를 가타카나로 쓰고 읽어보는 연습문제나 제시된 한글을 가타카나로 바꿔 쓰고 발음해 보는 문제로 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7) 연상화에 의한 가나의 인식

일본어 문자의 발음과 우리말의 비슷한 음으로 시작되는 사물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가타카나의 글자의 모양과 발음을 연상기억법에 의해 문자를 그림 속에 형상화시켜 나타내도록 한 방법이다. 시중의 가나학습 교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학습방법으로 히라가나 가타카나별로 그림이 따로 있는 교재와 가나문자 학습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동일한 유형의 그림에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양쪽 모두를 형상화하여 나타낸 교재가 있다.

그림을 통한 연상화는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고 또한 배우기가 쉬우며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당수의 그림이 문자의 형태와 연관시키기에는 부자연스럽다는 단점이 있다.

교과서에 나타나있는 가타카나 학습 항목들을 중심으로 가타카나의 지도법에 대해 살펴해보았는데 퍼즐이나 게임을 이용한 방법이 상당수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조금 일본어 학습자가 가나 학습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좀 더 쉽게 가나문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시중의 가나교재를 부교재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교사들의 설문에서는 교과서외의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가나교재에는 획순이나 기타 연상법에 사용하는 그림 등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가타카나 학습에 활용가치가 높다고 보여진다.

그 외에도 패션, 스포츠, 연예와 관련된 만화나 광고지, 잡지, 사진, 비디오 등의 가타카나어가 많이 사용되는 생생한 일상 자료를 이용해 수업을 진행한다면 가타카나의 기능 이해에도 도움이 되는 동시에 학생들의 일본어 학습의 니즈와도 연관시킬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가타카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지금까지 고등학교 일본어 교육에서의 가타카나 학습에 대하여 그 유형과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 12종을 그 안에 사용된 가타카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가타카나 학습에 대한 의견들을 설문을 통해 알아보고 가타카나 지도법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 보았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에서의 가타카나 학습관련 부분은 그 양적으로나 내용면에 있어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각 교과서별 가타카나 학습에 관련된 편차가 두드러졌는데 이러한 부분은 교육과정에서의 가타카나 문자, 어휘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교과서 구성의 기본이 되는 교육과정에서의 기본어휘 선정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본 가타카나어의 타당성에 대해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어휘를 제시해야 함은 물론이며 더불어 양적인 면에서도 전체 기본어휘 중 가타카나어 기본어휘가 차지하는 비율을 대폭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은 대부분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 가타카나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상당수의 교사가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가타카나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과서에 대해서도 가타카나 문자에 할애된 페이지나 가타카나 출현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교사가 많았으며 교과서에 포함된 가타카나어의 구성에 대해서도 사용도가 낮은 어휘의 사용에 대해 지적하거나 보다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가타카나어로 교과서 구성을 원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 1) 현대 일본어의 추세에 맞추어 가타카나어 비율을 교과서 어휘의 10%대로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 교과서에 포함하는 가타카나어 선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사용빈도와 범위가 넓은 어휘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 3) 학생들의 니즈 조사와 그에 맞추어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어휘에 대한 조사가 뒷받

침 되어야 할 것이다.

4) 교육과정에서의 가타카나 학습에 관련해 명확한 기준 제시와 기본어휘에 대한 양적인 증가와 함께 그 타당성에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교과서 안에 50음도표 이외의 장음, 특수음 등 구체적인 가타카나문자 학습페이지에 대한 할애와 더불어 가타카나가 갖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학생들에게 가타카나 학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6) 게임, 퍼즐 등의 방법이나 다양한 문제 풀이 형식을 사용해 학생들의 학습에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가타카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교재 개발이나 지도법에 대한 연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문자라는 것은 읽는 것의 기초인 동시에 표현의 기초이기도 하다.

일본어에 있어서의 가타카나도 마찬가지이다. 점차 가타카나의 사용도와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대 일본어의 언어활동을 고려한다면 교사에게는 물론이고, 교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 내용을 경험하는 학생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본어 교과서에 대한 가타카나 학습에의 명확한 기준의 확립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지도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참고 문헌

- 교육부(2000)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 김숙자(2000) 「韓·日 教科書の 外來語의 對照」, 『日本學報』第44輯, 韓國日本學會
- _____ (1997) 「일본어와 한국어의 외래어 대조」, 『人文科學研究』第6號, 상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박도진(2001) 「日本語의 カタカナ語에 대하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 박영숙(2000) 「韓國におけるカタカナ語教育」, 『日語日文學』第13輯, 大韓日語日文學會
- 박진(2001) 「高等學校 日本語 教育課程의 基本語彙 研究」,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 이혜영(1999) 「가타카나어 教育上의 諸問題」, 『日本學報』第43輯, 韓國日本學會
- _____ (1997) 「일본어 학습자의 가타카나 표기지도에 관한 一考察」, 『日語日文學研究』第31輯, 韓國日語日文學會

- 加藤彰彦(1989) 『講座日本語と日本語教育9 日本語の文字・表記(下)』, 明治書院
- 國立國語研究所(1984) 『語彙の研究と教育 上, 下』, 大藏省印刷局
- 國立國語研究所(1995) 『外來語の形成とその教育』, 大藏省印刷局
- 國立國語研究所(1982) 『日本語教育基本語彙七種比較對照表』, 大藏省印刷局
- 國立國語研究所(1987) 『分類語彙表』, 秀英出版
- 國立國語研究所(1988) 『文字・表記の教育』, 大藏省印刷局
- 國際交流基金(2002) 『日本語能力試驗出題基準』, 國際交流基金
- 須田清(1989) 『かな文字の教え方』, むぎ書房
- 玉村文郎(1991) 「日本語における外來要素と外來語」, 『日本語教育』74号, 日本語教育學會